

*yeong yang*

# WEB CONTENTS

가장   
자연적인  
영양

2024년 05월 02일 06시 12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ë¸©ì¸¸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자유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  | 3 |
| 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, 경북 영양 대티골 [조선] | 3 |
| 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, 경북 영양 대티골      | 3 |
| 위 치 :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        | 3 |



대티골에는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. 숲속으로 7km정도 이어지는 이 길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 어른 아이 모두 걷기 편안하다. 길 가장자리에 핀 꽃과 산야초를 관찰하며 천천히 걸으면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. 길 중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나무의자가 놓여있으니 산길을 오르기 전, 마실 물과 약간의 간식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.

---

▲ 산나물 채취중인 사람들 <사진제공: 영양군청>

길은 봉화에서 영양을 오가던 옛 국도길, 옛 국도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칠발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옛 마을길과 땃골길로 이루어진다. 길의 시작점은 윗대티골 입구이다. 그곳에서 옛 국도길로 들어서면 곧게 뻗어 오른 금강소나무가 반긴다. 이 길은 옛 국도였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. 국도라면, 아니 도로라면 당연히 되어있어야 할 포장도 없고, 그저 흙길을 넓고 완만하게 다듬어 놓았을 뿐이다.

길 중간쯤 서있는 '영양 28km'라 쓰인 낡은 표지판이 아니라면 그저 평범한 임도와 다를 바 없다. 하지만 낡은 표지판은 이 길의 의미를 바꿔놓는다. 그저 어디론가 오가던 길이 아닌, 역사가 담긴, 많은 이야기가 담긴 길임을 생각 들게 한다. 그래서인지 마을사람들은 이 길에 정성을 들인다.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길을 고르고, 길 가장자리에 돌탑을 만들어 두었다. 마을을 찾는 이들이 길을 걸으며 작은 돌 하나를 얻으면 그들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.

목록

수정

삭제

글쓰기

---

Copyright © Yeongyang-gun. All Rights Reserved.

*Yeong Yang*  
**WEB CONTENTS**

